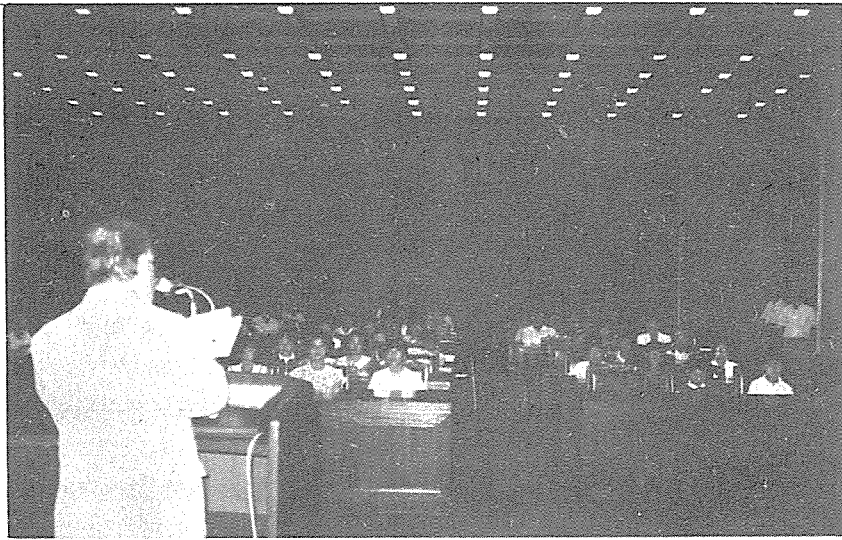


제3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당선 작품소개

이글은 당협회가 87년도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3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95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1편 우수작2편佳作5편 입선작10편 장려상20편등 총38편으로 이번호에 최우수작과 우수작2편을 게재 하였으며佳作 및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최우수작

우리 집은 우유 가족

서울 묘곡 국민학교

3-5 이명진

내가 네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함께 새벽 일찍 약수

터에 가기로 하여서 배드민턴 라켓과 물통을 들고 약수터에 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참 시원했습니다. 길에는 자동차도 사람도 많지 않았습다. 가끔씩 신문 날르는 오빠가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약수터까

지는 빨리 가면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나는 약수터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헬레벌떡 약수터에 올라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에는 한줄로 50명도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호! 야호!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 갔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한참을 보낸 후에 가까스로 물 한통을 받아서 내려 왔습니다. 약수터에서 다 내려와 우리 집으로 꺾어져 들어 가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천원짜리를 꺼내더니 담배를 사기 위하여 담배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담배 가게가 안 보였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살피는데, 그때 갑자기 삐익 소리를 내며 우리 앞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자전거가 쏘습니다.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우유 몇통을 들고 막 배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갑자기 우유가 먹고 싶어 졌습니다.

“아빠 돈 또 없어?”

“왜”

“우유가 먹고 싶어 그래.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이거 천원짜리 한장 밖에 없는 걸.”

“아빠 담배 사지 말고 우유 사줘.”

“그렇게 먹고 싶니?”

그래서 아빠는 담배대신 나에게 우유를 사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우유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 자전거에는 우유가 가득 있었지만 모두 500cc나 1000cc 뿐이었습니다. 돈을 천원짜리 내었더니 아주머니는 잔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유를 못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 요 세탁소 옆집에 사는 애로구나? 너 우유 안 먹니?”

나는 그때까지 우유를 별로 안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가게서 사 먹어 봤을 뿐입니다. 나는 아주머니 말씀들 들으니 우리 집에도 우유가 매일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유 아주머니가 양손에 든 우유를 길 앞 두 집에 얼른 넣어 주고 되돌아 오셔서

“애야, 내가 이거 하나 그냥 줄게 돈은 관 뒤라.” 하시며 500cc 우유를 하나 내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나는 받아도 될까 하고 아빠 얼굴을 쳐다 보았습니다. 아빠는

“명진아, 아주머니께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나는 집에 얼른 뛰어 들어와 그때까지 자고 있는 동생을 깨워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은 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아 아침밥을 먹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우유를 먹고 싶어요.”

“뭘, 돈이 어디 있니?” 그러자 잠자코 신문을 보시며 진지를 잡수시던 아빠가 얼굴을 들며

“애 명진아, 아까 그 아주머니 보고 하루에 우유 한 통씩 넣어 달라고 그래라.”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나를 흘겨보며 말하자 아빠는

“내 오늘 당장 담배를 끊지” 하시며 벽에 걸려 있던 윗저고리 주머니에서 라이다를 찾아 엄마 앞에 내어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없애 버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그날부터 매일 우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우리 아파트 안의 다른 아주머니들을 보면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해서 다른 아주머니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고마운 우유

우수작

서울 월촌 국민학교

5-2 정주원

“주원아, 우유값 여기 있다.”

“아니 우유값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루에 110원씩 2,750원이 있어야 하는데 5,500원이 봉투에 들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쭙어 보았다.

“응 이번엔 엄마도 우유좀 먹어야 되겠다. 한개는 너먹고 한개는 수고스럽지만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너라.”

나는 약간 쟁피한 생각이 들었고 또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지도 몰라서 싫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니까 상할 염려도 없고 또 값이 싸니까 먹어 보고 싶다고 하시며 선생님께서 안된다고 하면 할수 없지만 일단 가져가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받으면서 어머니는 역시 알뜰하시다는 생각을 하였다. 보통 때도 어디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이 싸고 좋다고 하시며 버스를 타고 일 부러 먼 데까지 다녀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 값도 잘 깎으시고 우리 옷도 떨어지면 꼭 기워주신다. 아마 학교 우유가 값이 싸니까 어머니께서도 잡수실려고 하시는데 같았다. 절약하시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내 돈을 받은 선생님께서는 의아해 하시며

“아! 주원이가 2개씩이나 먹으려고 그러니?”

하며 웃으셨다.

“아니예요. 어머니께서 잡수실려고 그 래요.”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글쎄다... 돈을 가져 왔으니 이번만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시며 받아주셨다.

그 후부터 나는 우유를 2개씩 받아서 한개는 내가 먹고, 한개는 집에 가져갔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내가 집에 오자마자 우유 달라고 하시며 맛있게 잡수셨고 나는 어머니께서도 우유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며칠후 나는 내 우유를 다 먹고 또 먹고 싶어서 어머니 우유를 마셔버렸다. 먹을때는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일이 걱정이었다. <실수로 엎질렀다고 할까? 아니면 한개 모자라서 내일 받기로 했다고 할까?> 한참 궁리 하였으나 뽀족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걱정만 하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우유 꺼내라.”

“.....”

나는 얼굴만 붉히고 말을 못 하였다.

“잊어 버렸니?”

“아니요”

“그럼 니가 먹었니?”

“예, 목이 말라서 그냥 먹었어요.”

“그래? 할 수 없지. 더 먹고 싶니? 그렇다

면 내일부터 네가 다 먹어도 돼.”

“괜찮아요.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날 부터 나는 어머니 우유까지 먹을 때가 많았다. 내가 우유를 2개씩 먹는것을 보고 친구들이

“무슨 맛으로 우유를 먹니? 나는 아무 맛이 없어서 안먹는데…”

“주원이는 우유꾸러기구나.”

“내 우유도 먹을래.”

하면서 자기 우유를 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영양가 많고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음료수라고 말해주고는 한다. 그리고 우유는 먹을 수만

있다면 하루에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믿지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먹는 것을 보더니 이제까지 우유를 먹지 않던 애들이 다음달 부터는 우유를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주원이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피부도 하얗고 건강하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어깨를 으쓱하곤 한다.

〈우유 덕분에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우수작

나는 우유박사

인천 청천 국민학교

4~7 홍인희

4학년에 올라오니, 바빴습니다.

일기는 1학년부터 써 왔지만, 관찰장이란 것은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1주일동안 계속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짝 경희는「강남콩의 싹트기」를 영실이 는 「배추의 싹」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과제를 정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으로 정해야 할텐데…….

마침내, 점심시간에 우유를 마시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변하는 모습은 어떨까?」라고 써 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목들을 훑어보시더니,

“반장인 홍 인희의 연구 제목이 특별하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5월 25일부터 6일간 관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우유병과 유리 덮개판을 각각 6개씩 마련해서 깨끗이 닦아 말렸습니다. 돋보기와 유리 막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유병에다 날짜를 써 놓았습니다.

또, 두꺼운 도화지로는 안내판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제 4학년 7반 30번 홍 인희

(관찰 대상) 우유

(관찰 제목) 우유가 변하는 모습은 어떻게?

(관찰할 것) 날짜에 따라 변화되는 우유의 ① 색깔 ② 냄새 ③ 모습

관찰할 것 중에서 맛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맛을 보다가 탈이 나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자료대 위에 놓인 내 것이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관찰 시간은 매일 오후 1시로 정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맨 처음의 우유를 관찰했습니다.

하얀 색에 고소한 냄새가 약간 났습니다. 저어 보니 물과 같았습니다. 뽀얀 우유가 유리 막대에 따라 도는 모습이 참 고왔습니다.

26일에는 두번째 병에 우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교하였습니다.

하루가 된 우유의 색깔은 다르지 않았지만, 고소한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어 보니 물기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관찰장에는 날씨, 기온도 기록했습니다.

맑은 날에 기온은 18도 정도였습니다.

2일이 된 우유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돋보기로 본 색깔은 노르스름했고, 약간 된 듯 했습니다. 유리 판을 재치고 냄새를 맡으니, 시큼했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누런색을 띠면서 많이 시큼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기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색도 칠해 가며 기록하니, 참 재미있었습니다.

4일째가 된 우유를 관찰하였습니다.

마치 풀을 썬어 놓은 것처럼 되었고, 쉰내가 심했습니다.

마지막인 5일째가 되었습니다.

희색빛이 나면서, 냄새가 코를 찔러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어 보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순두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품도 났습니다.

우유병 6개가 쪽 놓인 것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점점 변해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반 대표로 교내 대회에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관찰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우유는 오래 되면 노란색→누런색→희색빛을 띤다.

2. 우유는 오래 되면 쉰내가 난다.

3. 우유는 오래 되면 엉겨서 덩어리가 된다.

나의 관찰장이 교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 뺏기도 댔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칭찬하시면서,

“상한 우유는 몸에 해로우니, 그날 그날 먹어야 좋다.”

하시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우유 박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연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유가 영기면서 순두부처럼 되는 이유를 알아 낼 것입니다. 그리고, 통조림처럼 우유 통을 만들어 오래 오래 두고 먹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닌 진짜 우유 박사가 될 것입니다.

